

검·경 핵심요직 100% 영남이 장악... 검사장급 이상 47명 중 20명

5대 권력기관 고위직 간부 168명 출신지 분석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 접어들면서 특검지역 편중 인사가 더욱 심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대 권력기관인 이른바 검찰과 경찰, 국제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관장들은 모두 경남과 경북 등 영남권 출신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특검지역 편중인사 실태조사단이 5대 권력기관 고위직 간부 168명에 대한 출신지를 조사한 결과 부산·경남이 37명(22%), 대구·경북이 34명(20.2%)으로, 영남권 출신이 71명이었다.

이는 5대 권력기관 고위직 간부 중 절반에 육박하는 42.3% 정도로, 심각한 편중 인사를 보였다.

호남권 출신은 30명(17.9%), 충청권 출신은 28명(16.7%)에 불과했다.

5대 권력기관 조사 대상은 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47명과 경찰 본청 국장급 및 지방청장 등 고위직 40명, 국제청 국장급 이상 고위직 30명, 감사원 국장급 이상 고위직 35명,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이상 16명 등 총 168명이었다.

◇검찰 지휘부 및 주요 보직 영남권이 '독식' =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 47명의 출신지를 분석한 결과 부산·울산·경남 출신이 10명(21.3%), 대구·경북 출신이 10명(21.3%)이었다. 이 가운데 검찰 총수인 김진태 검찰총장이 부산 출신이며, 검찰 권력서열 2위인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은 대구 출신이다.

특히 대검 중앙수사본부가 사라진 뒤 '제2 중수부장'으로 불리는 핵심보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경북 출신인 박성재 검사장이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주요 특수·공안 수사를 모두 지휘하는 사실상 검찰의 가장 중요한 자리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핵심 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안태근)과 대검 공안

영남 71, 호남 30, 충청 28명

국제청 30명중 14명이 PK

감사원·공정위 국장급 이상

절반 가까이가 영남권 출신

전현직 국무위원 33명 출신지역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20명 출신지역



부장(정점식)도 모두 경남 출신이다. 검찰 국장은 검찰 인사를 맡고 있는 주요 보직이고, 대검 공안부장은 전국 공안 사건을 총괄하는 보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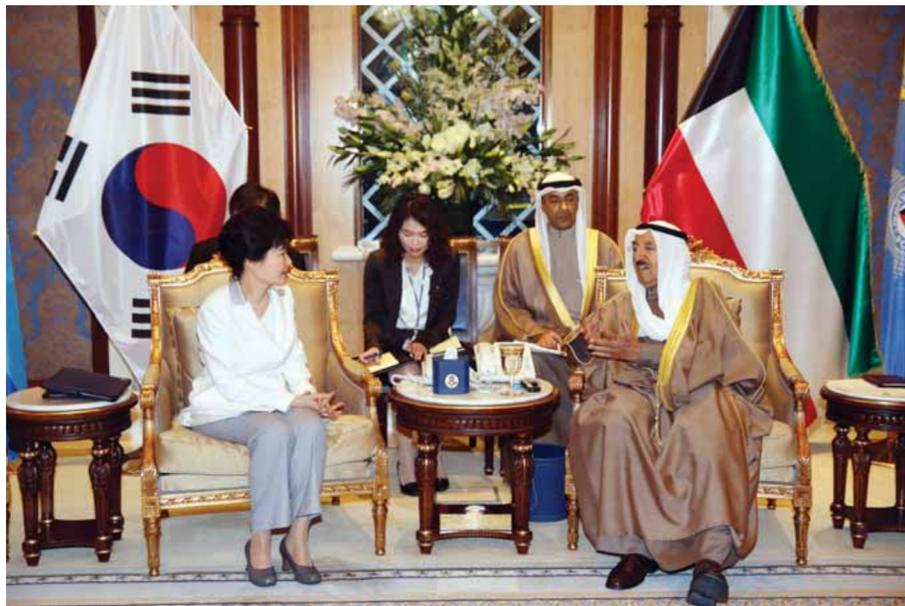
반면에 수도권과 호남권 출신은 각 10명으로 영남권의 절반 밖에 되지 않으며, 충청권 출신은 5명(10.6%)에 그쳤다. 이마저도 검찰 내 주요 보직에서는 포함되지 않았고, 대부분 고검장을 비롯한 법무부,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등에 배치됐다.

◇경찰·국제청·감사원·공정위 고위직 절반도 영남=경찰 본청 국장급 및 지방청장 이상 고위직 40명의 출신지는 부산·경남 출신이 11명(27.5%), 대구·경북 출신이 8명(20%)으로, 영남권 출신은 모두 19명이었다. 절반 가량이 47.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호남권 출신은 6명(15%), 수도권 출신은 2명(5%)이다. 경찰 총수인 강신명 경찰총장은 경남 출신이고, 경찰청 주·보직으로 꼽히는 기획조정관과 생활안전·경비·정보국장도 모두 영남권 출신이 차지했다.

국제청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30명)의 출신지는 경북 출신인 인환수 국제청장을 비롯한 대구·경북 출신이 9명(30%), 김봉래 국제청 차장을 비롯한 부산·경남 출신이 5명(16.7%) 등으로, 영남권 출신이 14명(46.7%)이다. 반면, 광주·전남·전북·호남권 출신은 6명이었다.

감사원 국장급 이상 고위직(35명)도 경남 출신인 황천현 감사원장을 비롯한 부산·경남 출신이 10명(28.6%) 등 영남권 출신이 13명(37.1%)이며, 수도권 출신 10명(28.6%), 충청권 출신 7명(20%), 호남권 출신 4명(11.4%)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16명) 또한, 경북 출신의 정재찬 위원장 등 대구·경북 출신 4명(25%) 등 영남권 출신이 5명(31.3%)이며, 수도권 5명(31.3%), 호남권 4명(25%), 충청권 2명(12.5%) 순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쿠웨이트 정상회담 중동 4개국을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쿠웨이트 바안궁에서 셰이크 알-아흐마드 알-자베르 알-사비 쿠웨이트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직 국무위원 33명중 호남출신 고작 4명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인사에서는 박 대통령 출신지인 대구·경북 출신 인사들의 편중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위원 인사에서도 영남권 출신 인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정부부처 차관급 이상 고위직 간부 인사에서도 영남권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현직 국무위원은 수도권이 최대 =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임명된 전·현직 국무위원 33명 중 호남 출신은 고작 4명(12.1%)뿐이었다.

전·현직 국무위원들의 출신지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출신이 12명(3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남권 출신이 11명(33.3%), 충청권 출신 5명(15.2%)이었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출신이 9명(27.3%)으로 가장 많았다. 영남권은 대구·경북 6명(18.2%), 부산·경남 5명(15.2%)이었다.

반면 호남 출신은 김관진(전북) 전 국방부장관, 진영(전북) 보건복지부 장관, 방하남(전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전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 4명 뿐이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대구·경북 편중 갈수록 심화

차관급, 영남이 호남 2배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현직 국무위원 18명의 출신지 조사결과에서는 대구·경북 출신이 4명(22.2%)으로 정홍원 전 국무총리 등 전직 국무위원 15명 출신지 조사결과에 비해 2배 증가했다. 호남 출신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1명(5.6%)뿐으로, 전직 국무위원 15명 출신지 조사결과에 비해 1/3로 줄었다.

◇청와대 대구·경북 출신 편중=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전·현직 고위직 115명의 출신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대구·경북 출신이 31명(27%)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산·경남(10명·8.7%)을 합치면 영남권 출신은 41명(35.7%)으로 전체 비서관급 이상의 35.7%를 차지했다.

반면 호남권 출신은 14명(12.2%), 충청권 출신은 18명(15.7%)에 불과했다.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급(특보 포함) 이상 20명의 출신지에서도 대구·경북 출신 편중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20명

중 영남권 출신이 9명(45%)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서도 7명이 대구·경북 출신이었다.

이는 청와대 전직 수석비서관급 이상 18명의 출신지 조사 결과 대구·경북 3명 등 영남권 6명(33.3%)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반면에 호남권 출신은 전직 4명(22.2%)에서 현직 3명(15%)으로, 충청권 출신도 3명(16.7%)에서 2명(10%)으로 각각 줄었다.

청와대 현직 비서관급 42명의 출신지 조사결과에서도 대구·경북 출신은 전직에 비해 늘어나는 등 수석비서관급과 함께 청와대 고위직 인사가 대구·경북 출신을 중심으로 영남권 편중 인사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 영남이 호남의 2배 이상=정부조직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 현직 차관급 이상 고위직 132명의 출신지를 조사한 결과, 부산·경남 출신 25명(18.9%), 대구·경북 출신 24명(18.2%) 등 영남권 출신이 49명으로 37.1%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호남권 출신은 21명(15.9%), 충청권 출신은 16명(12.1%)이었다. 1%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968명 중 호남 출신 22% 공공기관장 234명 중 영남권 100명 호남권 24명

2015년 2월 현재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 단 총 출신지가 파악된 968명의 출신지역 현황은 대구·경북 출신 188명(19.4%), 부산·경남 출신 150명(15.5%) 등 영남권 출신이 338명(34.9%)이었다.

광주·전남 출신 132명(13.6%), 전북 출신 76명(7.9%) 등 호남권 출신은 208명(21.5%)이었으며, 이어 서울(129명·13.3%)을 포함한 수도권 출신은 195명(20.1%)였다. 충청권 출신은 149명(15.4%)로

조사됐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기관장으로 임명된 234명의 출신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정부 고위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 출신 편중 현상을 보였다. 234명의 공공기관장 중 대구·경북 출신이 51명(21.8%), 부산·경남 출신이 49명(20.9%) 등 영남권 출신이 100명으로 4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호남권 출신은 24명(10.3%), 충청권 출신은 18명(7.7%)에 불과하다. 금융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진 64명의 출신지 조사에서는 서울 출신이 21명(32.8%) 등 수도권 출신이 25명(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북 출신 11명(17.2%), 부산·경남 출신 9명(14.1%) 등 영남권 출신이 20명(31.3%)이었다. 반면, 호남권 출신과 충청권 출신은 각각 8명(12.5%)에 그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www.HanaTour.com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총장점

문의전화 062)228-1199

주소 : 광주 중구 불로동 96-7번지 (근무시간 : 09:00~20:00(연휴무))

상당 및 예약 :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리치투어	062)431-0102
가람여행사 수완점	062)955-5230
세정투어 여행사	062)464-8000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하나투어에서 추천하는 테마여행으로 떠나세요!

HNT 하나투어 웨딩&허니문 박람회

Wedding & Honeymoon Fair

2015. 3. 7(토) ~ 8(일) 11:00~19:00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광주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228-1199

사전 방문 신청후 상담 EVENT!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1만원 증정

하나투어 웨딩&허니문 박람회 참가업체

스튜디오 - 크리스티나/드레스 - 시자바이 이영순/메들 - 에스엘/반복 - 김현복

하나투어프리미엄 로드샵에서 추천하는 허니문 상품

세부 5일 APW178_KEA [베이비문] 파크 아일랜드	브라카이 5일 APW112_E 리전시라군 리조트
총상품가 1,463,000원~ 현지지출 ▶ 가이드+기차경비 포함 선택 경비 있음 출발일 : 3~6월 토/일/월요일 평구배고음신부 방식 리팩스 증정 (세부 현지 증정) 마사지 2회 포함 (에코하프대이스파, 전신마사지)	총상품가 1,180,000원~ 현지지출 ▶ 가이드+기차경비 포함 선택 경비 있음 출발일 : 3월~6월 일/월요일 호텔투어/왕제마사지 / 디올투어 / 세일링보트 / 버그카 / 커피맛마사지/스키프 포함

[하나TV쇼핑] 코스무이 W 리조트 6일

총상품가 1,900,000원~
현지지출 ▶ 가이드+기차경비 포함
선택 경비 있음
출발일 : 3월~6월 토/일/월요일

W 리조트 내 디너 업그레이드 / WOO BAR 음료 제공/태국 어디서나 1GB 데이터 사용가능한 U-SIM 제공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관광 내역 및 금액,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ur.com)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